

노벨상에
수학상이 빠진 까닭은
노벨과 스웨덴의 저명한
수학자가 한 여인을 두고
삼각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11월이 되었으니 노벨상의 수상자가 발표되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상이 있는 분야는 올 한해의 연구 업적을 노벨상이라는 상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겠다. 이런 때, 왜 학문의 여왕이라는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는지 의아해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노벨은 스웨덴 출신이지만 생애의 대부분을 스웨덴이 아닌 유럽에서 보냈다. 그래서 노벨의 사생활이나 그의 유언에 대한 해석도 그가 살았던 나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와 미국인들에 의하면, 노벨이 그의 유언에 노벨 수학상을 포함하지 않은 까닭은, 당시의 유명한 수학자인 스웨덴의 미타그레플러와 한 여인을 두고 삼각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 측의 의견은, 만일 당시에 노벨 수학상이 있었다면 스웨덴의 한림원은 당연히 자기 나라의 세계적인 수학자인 미타그레플러를 선정할텐데, 그러면 프랑스의 뽀앵까레, 독일의 힐버트와 같이 그보다

노벨상에 왜 수학이 없나 스웨덴 수학자와 삼각관계 사연이...

훌륭한 수학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노벨 수학상은 없다. 수학자들에게는 아쉬운 일이다.

1924년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세계수학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캐나다의 수학교수 필즈는 우수한 업적을 낸 두 명의 수학자에게 매 세계수학자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여할 것을 제안하여 의결되었다. 필즈는 금메달을 위한 기초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후 그의 유산도 이 자금에 증여하였다. 이 상은 현재와 특히 미래의 수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학자에게 금메달이 수여되기를 바란 필즈의 뜻에 따라 수상자의 연령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그 후 몇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필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인 1936년의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첫 금메달이 필즈상이라는 명칭으로 수여되었다.

지난 98년의 대회에서는 4명의 수학자가 수상하였는데 지금까지 4명을 넘는 인원이 수상한 대회는 없다. 세계수학자대회는 4년마다 열리므로 평균으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1년에 1명 미만이 이 상을 수상한 셈이다. 노벨상에 비하여 아주 적은 수이다.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연령이 60대인데 비하여 필즈상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인생과

두뇌의 활동이 가장 화려한 30대이다. 이는 앞으로의 수학발전에 기여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노벨상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령에 대한 제한은 꽤 완고한 것인지, 수년 전 수백년 동안 풀지 못했던 페르마정리를 해결한 영국의 와일즈라는 수학자의 경우, 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했던 나이는 40세가 되지 못했었지만, 그가 완전한 풀이를 발표한 나이는 40세를 넘겼었는데, 그는 금메달을 수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상 격인 금증판을 수상했었다.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 정부는 2천2백만달러를 출연하여 뛰어난 업적을 낸 수학자들에게 아벨상을 수여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차 방정식 이상의 경우에는 이 방정식을 푸는 근의 공식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증명하였으나 20대의 나이에 요절한 노르웨이의 수학자 아벨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 상은 매년 수여되되 나이 제한도 없으며 아벨의 탄생 2백주년이 되는 2003년에 첫 수상자를 발표한다고 한다. 상금도 수학에 대한 상으로는 꽤 많아서 50만달러라고 한다. 참고로 지난해의 노벨상 상금은 약 1백만달러였으며 필즈상은 약 1만달러이다. ⑤7

高城殷 (건국대 수학과 교수)